

포장전문 이삿짐 업체 웃돈 요구 등 '횡포'

이사철 추가비용 덤터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사전 방문·견적 꼼꼼히 확인...계약서 필수

본격적으로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이사 및 포장전문업체의 웃돈 요구 등 횡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각종 이사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산정해 고객들과 갈등이 불거지는 등,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사짐 업체 선정시 가격과 운반 서비스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사전 방문시 견적을 정확히 확인 후 웃돈 요구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17일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5년 157건 2016년 149건 지난해 134건 접수됐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12건이 접수됐다. 구체적 피해상담 내용은 운반에 따른 물품 파손 및 배상 요구 회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계약위반·부당요금·계약해지 위약금·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피해사실에도 이사전문업체 절반 가량은 특별한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대학 개강과 신학기철에 맞춰 이사 수요가 점차 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3월 대학 개강에 맞춰 북구 용봉동 한 원룸으로 이사를 한 서 모씨(22)는 여러 업체에 이사 견적을 확인한 후, 가장 저렴한 업체에 이삿짐을 맡겼지만 당초 계약과 다르게 추가요금이 붙어 업체측과 갈등을 빚었다.

서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짐이 많아 이사 당일 1톤 트럭 한 대가 추가될 수 있으며,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사 당일 처음 계약금액과는 다르게 50만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했다.

이달 초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이 모씨(40) 역시, 당초 계약에 없던 온돌 집대 운반비용을 추가로

요구해 이사업체와 얼굴을 볼까야만 했다. 이씨는 또, 업체가 20층 이상 사다리차 이용 명목으로 추가요금까지 요구하면서 당초 비용 보다 35만원을 더 지불했다.

이씨는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면 돌려 보낼 수도 없어 꼼꼼없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삿짐 운반 도중 물품이 파손돼 보상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진월동으로 이사하던 박 모씨(35)는 포장이사 업체 직원들이 냉장고를 운반하던 중 떨어뜨려 문 한쪽을 파손시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업체측의 처음 약속과 다르게 배상을 미뤄 2개월째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씨는 "포장이사 업체들이 관련물품을 배상하지 않을 경

우 법적절차를 밟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사할 때 사용되는 차량 크기와 차량대수·작업인원수·세부작업조건·별박이장·에어컨 설치여부·잔금지급 관련 총비용 등, 각종 특약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분쟁 발생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포장업체 한 관계자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며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충분히 주의를 시켜야 하며, 업체 관계자들은 집주인의 귀중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민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지원

경찰·행정복지센터 협조

광주 경찰이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지원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와 청문감사실은 22일 오전 광주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80대 홀몸노인 살인사건 피해 유족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유족과 시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복지센터 측에 당부했다.

이에 복지센터 측은 유가족 임시숙소 제공, 유족과 주변인 심리치료, 현장정리·청소, 유족구조금을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장은 "사망사고와 장제비 지원 등 절차를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찬 기자

10대 차량털이 구속영장 신청

여수경찰서는 여수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여수시 주택가를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내고 있다.

/여수 = 객재명 기자

"식당이 불결해"

싸움 건 50대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고 화장실이 더럽다며 시비를 걸어 식당 주인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서 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윤 모씨(50)는 지난 22일 새벽 0시 10분께 김 모씨(55)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식당 주인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 화장실이 더럽다"며 시비를 걸고, 김씨가 항의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맛이 없으면 다시 그 식당을 안가면 되지 괜히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해서야 되겠느냐"며 혀를 끝.

/김종찬 기자

통장에 주민정보 건넨뒤 선거문자 폭탄

서구 아파트 주민들, 통장·관리사무소장 고소

주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단지 통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단지 통장 박 모씨(63)와 관리사무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을 낸 아파트 주민 7명은 "박씨가 지난달 9일께 통장 직위를 이용해 입주자명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박씨가 동·호별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날짜, 자가 여부,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보유 자동차 대수, 면적 등 주민들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요구했고, 개

정보 유출을 우려한 담당자가 아파트 호수와 각 세대주 이름만 간추린 편집본을 전달하자 모든 세대원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재차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담당자에게 통장 요구대로 명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은 박씨가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며 불만을 호소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를 통장으로 위촉한 서구청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난 2주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전화번호는 결코 없었다'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완도해경, 섬마을 잇단 응급환자 신속 대처

늦은밤 섬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응급환자들이 해경의 신속 대처로 병원에 이송됐다.

2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소안도 주민 이 모씨(51)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해경 122상황실에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접수 15분 만에 소안도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보내 이씨를 육지 섬으로 옮겼다.

전날 오후 9시께에는 완도군 노화도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권 모씨(62)와 최 모씨(60)를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하며 긴급 이송했다.

/완도 = 최규욱 기자



범 서구민 일제 대청소

봄을 맞아 22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에서 열린 범 서구민 일제 대청소에 참가한 서구세마을 회원 등이 공원에 버려진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조건만남 사기단 도운 30대 영장

금융사기 조직에 체크카드 넘겨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 특정 조직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 모씨(3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대표로 있

는 회사명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특정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팸 문자를 받고 하루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킥서비스로 회사 명의 카드 등을 보낸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보낸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남성 8명이 '조건만남 선입금'으로 47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조건만남을 방자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2천 ◆
매매가 9천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8억 5천만 ◆

- 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 매가 9억 5천만
- ② 전대정문 2분(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 매가 13억 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1) 담양군 삼다리 (무인텔)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 32개 (월수익 4,500만 예상)
▶ 감평가 37억 → 최저가 17억
- 2) 화순 도곡면 (호텔)
토 617평 2,829평
▶ 감평가 26억 → 최저가 7억5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 4) 광산구 장덕동 (3층 근린주택)
1층(상가) 2층-3층(아파트형 빌라-6개)
감평가 7억2천 → 최저가 5억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평가 4억8천7백 → 최저가 3억4천1백
- 6)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평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광동 (원룸빌딩)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상가빌딩)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장로 (3층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완지구 (주차빌딩 1층)
감평가 12억7천 → 최저가 7억1천

APT·주택·공장·토지(기타)

-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 (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 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 6백
-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벨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 2천6백
- ⑥ 광산구 용동 (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 9억7천 → 최저 6억7천
- ⑦ 함평군 신광동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⑧ 광산구 삼가동 (공장)
감정 6억 → 최저 4억2천
-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 382-5500

경매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①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② 기초반→경매기초+기본실전(무료교육)
- ③ 실전투자반→기초+실전-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십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 382-5500
010-6670-9800